

아프리카에서 연구한 여성 동물학자 앤 이니스 대그의 생각

기린에게 다가가세요



아리안나 디 제노바 글 | 다니엘라 티에니 그림
김배경 옮김 | 김산하 추천

정가 12,000원 | ISBN 979-11-6327-136-9

발행일 2023년 7월 20일 | 도서출판 책속물고기

태그/주제어 #앤이니스대그 #기린 #관찰 #여성과학자 #동물
#존중 #정의 #차별 #종다양성 #용기 #모험

분류 국내도서 > 어린이 > 초등5~6학년 > 인물
국내도서 > 어린이 > 여성인물
국내도서 > 어린이 > 과학 > 과학자/환경 이야기//생물과 생명
국내도서 > 어린이 > 사회 > 인권/평등



어떤 내용인가요?

야생 기린에게 다가간 인간 친구, 앤 이니스 대그

앤 이니스 대그는 세 살이던 1936년 동물원에서 처음 기린을 봤고 바로 사랑에 빠졌다. 기린과의 만남은 운명적으로 앤을 동물학자의 길로 이끌었다. 앤은 기린을 그저 신기한 동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알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행동과 습성을 살펴보고 싶은 새로운 '종'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동물원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기린이 아니라 광활한 아프리카 평원을 자유롭게 다니는 기린들을 연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만 해도 동물의 자연적인 습성을 알기 위해 서식지에 가서 연구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앤은 학위를 받자마자 아프리카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그런데 앤이 아프리카로 떠나기까지 큰 장애물이 있었다. 1950년대 젊은 백인 여성이 혼자 아프리카로 간다는 건 사람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프리카 여러 대학에 지원을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하지만 앤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차례 지원했고 약간의 꾀를 내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플뢰르 드 리스' 농장에 갈 수 있었다. 거기서 앤은 아흔다섯 마리의 기린과 가슴 설레는 만남을 가졌다. 앤은 기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찜통 같은 차 안에서 수백 시간을 보내며 조용히 기린을 관찰했다. 앤은 기린에게 침입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를 존중하며 서서히 다가가는 친구가 되려 했다.

기린 연구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앤은 세계 최초로 기린의 습성을 관찰하고 기록한 학자였지만 세 아이가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학에서 종신 재직권을 얻지 못했다. 자신보다 성과가 없는 남자 교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앤은 여기에 맞서 싸웠지만 법정까지 간 다툼에서 결국 지고 말았다.

여기까진 앤 이니스 대그는 비운의 동물학자로 남는 듯 보인다. 하지만 '용감한 자가 인생을 쟁취한다'고 믿는 앤은 여전히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고 있다. 앤 이니스 대그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선생님 도움말

앤 이니스 대그는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린 전문가란 칭송을 받고 있어요. 그는 기린을 사랑한 동물학자일 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인종 차별에 반대하고, 남녀 차별에 당당히 맞선 위대한 여성 운동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앤 이니스 대그는 80세가 넘는 늦은 나이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책을 읽으며 앤이 처한 시대 상황을 알아보세요. 또한 앤이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며 극복했는지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할머니 앤 이니스 대그에게 책을 읽으며 배운 점, 감동적인 장면, 하고 싶은 말 등을 자유롭게 담아 편지글을 써 보세요.

🌍 앤이 자신을 '특권을 누리며 자란 딸'이라고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부모님은 기린에 푹 빠져 있던 어린 시절 앤을 어떻게 대했나요?

🌍 어린 시절부터 20대까지 여러 일화를 통해 봤을 때 앤의 성격은 어떤가요?
구체적인 일화 하나를 들어 이야기해 보세요.

책 속 엿보기

캐나다 숲속에서 만날 수 있는 야생 동물이라고는 여우, 사슴, 늑대, 오소리, 그리고 그 무섭다는 회색곰뿐이었지만 부모님은 항상 내 뜻을 존중하고 내 편이 되어 주었어요.

“앤, 넌 나중에 꼭 기린을 따라가서 종일 놀다 오렴.”

— 24쪽

“기린에 대해 나와 있는 게 없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네가 기린을 제대로 연구해 보는 건 어때?”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 말은 항상 옳아요. 지름길은 없는 법이죠!

— 28쪽

그 시절 나는 특권을 누리며 자란 딸이었어요. 우리는 4남매나 됐지만 누구나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아들과 딸에 차별을 두지 않았거든요.

— 29쪽



분석하기

기린을 사랑한 동물학자 앤 #인물의 철학, 업적 생각해 보기

🌍 앤이 여러 장애물이 있는데도 굳이 아프리카에 가서 기린을 연구하려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 앤은 남아프리카에서 어떻게 기린을 관찰하고 연구했나요?
앤의 관찰·연구 방법, 자세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도 말해 보세요.

책 속 엿보기

“사실은…… 나도 계획이 있어. 아프리카 기린 서식지에 가서 이제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야생의 기린 연구를 할 거야. 동물들이 동물원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 동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관찰해야만 해…”

— 36쪽

“나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기린의 우아한 자태에 끌렸어요. 특히 걷는 모습이요. 그래서 기린의 보행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아무도 연구한 적 없는 분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을 연구할 때 자연 서식지로 가지 않아요. 동물원에 가서 관찰할 뿐이죠. 하지만 갇힌 상태에서 동물의 행동 습성은 바뀌어요. 그래서 반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자연 상태에서 동물들의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58쪽



비판하기

앤이 '기린학자'로 불리기까지 #부당한 차별 비판하기

🌍 앤이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에서 기린의 습성을 관찰 연구한 학자임에도 대학의 종신 교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 비판해 보세요.

🌍 기린 연구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을 때, 부당하게 교수 임용에서 탈락했을 때 앤은 어떻게 했나요? 이런 장면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말해 보세요.

책 속 엿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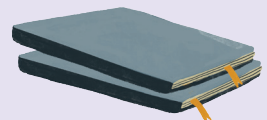
대학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대학에서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었어요. 여성에게는 장애물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특히 결혼은 여성에게 일할 기회를 빼앗았어요. ... 그 모든 어려움은 나에게 도전이자 자극이 되었지요.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포기하는 대신, 소매를 걷어붙이고 스스로 연구 자금을 조달했지만 모든 연구가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안이 생활비를 대는 동안, 나는 포유류 등을 다루는 과학책이나 여성 차별에 맞서는 내용을 담은 책과 칼럼을 써서 번 돈으로 연구와 답사를 계속했어요.

— 99쪽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은 교수 자격을 갖춘 나를 제치고 남자를 채용했어요. 결혼한 여자는 연구에 매진할 수 없기 때문이라나요? 나는 교수가 되지 못했을 때 법정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 100쪽



🌍 앤 이니스 대그는 여든 살이 되어서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린 전문가라는 칭송을 받으며 케냐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후 이름이 알려지고, 앤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영화감독을 통해 그녀의 삶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었지요. 여전히 기린 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앤 할머니에게 책을 읽은 소감, 하고 싶은 말들을 담아 편지를 써 보세요.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decorative orange border, containing several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a letter.

편지 쓰기

편지를 쓸 때는 기본적인 형식에 따라 써야 합니다. 부르는 말, 첫인사와 안부, 사연(하고 싶은 말), 끝인사, 쓴 날짜, 보내는 사람 이름 등을 차례로 써 봅니다. 이 중 특히 사연을 쓸 때 책의 내용을 언급하고,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등을 다양하게 떠올려 써 봅니다.

